

(2017. 3. 18 시행) 사회복지직(서울시) 9급 기출문제 [국어 해설]

[안 한 섭 선생님]

제일고시학원(중앙로점/충남대점) www.okpass.com

1. 밑줄 친 표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그 사람은 입이 벌어져 입맛 맞추기가 어렵다.
-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.
- ② 입이 거친 그를 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.
-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.
- ③ 이번 일은 내가 허방 짚은 격이다.
-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.
- ④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.
- 땀을 일부러 많이 내서 피곤을 풀다.

정답 ④

해설:

땀을 들이다 「1」 몸을 시원하게 하여 땀을 없애다. 「2」 잠시 휴식하다

2.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?

-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.
-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.
-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.
-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.

정답 ①

해설: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고, 생략된 성분이 없으면 동격 관형절이다.

-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. → 동격 관형절(생략된 성분 없음)
-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. → 관계 관형절(‘양복을’ 생략)
-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. → 관계 관형절(‘지갑을’ 생략)
-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. → 관계 관형절(‘사람을’ 생략)

3. 주어진 단어의 자음 두 개를 <보기>의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낼 때, 모두 옳은 것은?

<보기>

하나의 음운이 가진 조음 위치의 특성을 +라고 하고,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-로 규정한다. 예컨대
≡ 은 [+치조음, -양순음, -경구개음, -연구개음, -후음]으로 나타낼 수 있다.

- ① 가로 : [+ 경구개음], [-후음]
- ② 미비 : [-경구개음], [+ 후음]
- ③ 부고 : [+ 양순음], [-치조음]
- ④ 효과 : [-후음], [-연구개음]

정답 ③

해설: ‘부고’에서 ㅂ은 ‘양순음(입술소리)’이고 ㄱ은 ‘연구개음(여린입천장소리)’이므로 적절하다.
나머지 단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.

- ① 가로 : [+ 연구개음], [-후음]
- ② 미비 : [-경구개음], [-후음]
- ④ 효과 : [+ 후음], [+ 연구개음]

4. 밑줄 친 ㉠을 고려할 때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「표준어 규정」제2부 표준 발음법

제12항 받침 ㅎ 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.

4. ㉠ ㅎ(하, 려)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, ㅎ 을 발음하지 않는다.
 낱은[나은], 쌀이다[싸이다], 많아[마 : 나], 싫어도[시러도]……

- ① 바지가 다 닳아서[다라서] 못 입게 되었다.
- ②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고[끄리고] 있다.
- ③ 가지고 온 책은 책상 위에 놓아[노아] 두렴.
- ④ 기회를 놓치지 않은[안는]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.

정답 ④

해설: 않은[아는]으로 발음해야 한다.

5.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?

- ① 그 친구의 키는 장대 만큼 크다.
- ② 그 친구의 집에는 사과, 감, 귤 등이 많이 있다.
- ③ 그 친구와 연락한 지 세 시간만에 만났다.
- ④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 지 모르겠다.

정답 ②

해설: ‘들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는 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.

- ① 그 친구의 키는 장대 만큼 크다. → 장대만큼
- ③ 그 친구와 연락한 지 세 시간만에 만났다. → 세 시간 만에
- ④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 지 모르겠다. → 맞는지

6. 문맥을 고려할 때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?

- ① 그는 변명(辨明)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.
- ②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상 인식(人識)에 영향을 끼친다.
- ③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(大處)해야 한다.
- ④ 올림픽은 국위를 선양(禪讓)하기 위한 겨루기의 장이다.

정답 ①

해설: 변명(辨明): 「1」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. 「2」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.

인식(認識):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.

대처(對處):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.

선양(宣揚):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.

7.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·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, 물[水] 이 현대 국어에 와서 ‘물’로 형태가 바뀌었으며, 어리다 가 어리석다[愚]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[幼]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()이라고 한다.

- ① 사회성
- ② 역사성
- ③ 자의성
- ④ 분절성

정답 ②

해설: 언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이다.

8.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리끼 :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
- ② 무람없다 : 생김새가 불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.
- ③ 국으로 : 제 생긴 그대로
- ④ 짜장 : 과연 정말로

정답 ②

해설: ‘무람없다’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. 즉 버릇없다는 뜻이다.

9. 짝지어진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언인 것은?

- ①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.
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.
- ②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.
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.
- ③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.
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.
- ④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.
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.

정답 ①

해설: ①번은 모두 본 뜻에서 떨어진 보조용언이다. ‘읽어 보거라’에서 보조 용언 ‘보다’는 동사 뒤에서 ‘-어 보다’ 구성으로 쓰여,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이다.

- ②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.→ 보조용언
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.→ 본용언
- ③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.→ 본용언
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.→ 보조 용언
- ④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.→ 본용언
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.→ 보조 용언

10. <보기>의 ㉠~㉣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<보기>
㉠ 낮익은, 철수의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.
㉡ 꺼진 불도 다시 보자
㉢ 휴가를 낸 김에 며칠 푹 쉬고 온다?
㉣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. 하고 생각하였다.

- ① ㉠ : 썬표를 보니 관형어 ‘낮익은’은 ‘철수’와 ‘동생’을 동시에 수식함을 알 수 있다.
- ② ㉡ : 마침표가 없는 것을 보니 ‘꺼진 불도 다시 보자’는 제목이나 표어임을 알 수 있다.
- ③ ㉢ : 물음표를 보니 의문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.
- ④ ㉣ : 작은따옴표를 보니 ‘일이 다 틀렸나 보군.’은 마음속으로 한 말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정답 ①

해설: ㉠ 낮익은, 철수의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.→ ‘낮익은’ 뒤에 썬표를 했으므로 ‘동생’만을 수식한다.

11.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의 표기가 옳은 것은?

- 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왔다.
- ② 일이 다 잘되서 다행이다.
- ③ 입구에 붉은 글씨가 쓰어 있다.
- ④ 생각컨대 조금 더 기다려 보자.

정답 ③

해설: ‘쓰이다’는 준말 ‘쓰다’이므로 ‘쓰이어’와 ‘쓰어’, ‘쓰여’로 쓸 수 있다.

- 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왔다. → 가까웠다
- ② 일이 다 잘되서 다행이다. → 잘돼서 또는 잘되어서
- ④ 생각컨대 조금 더 기다려 보자. → 생각건대

12.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?

사면(四面)으로 두른 것은 토끼 잡는 그물이고, 토끼 은신 수풀 속 쫓는 것은 초동(樵童)이라. 그대 신세 생각하면 적벽강에 전패(全敗)하던 조맹덕의 정신이라. 작은 눈 부릅뜨고 짧은 꼬지 뒤에 끼고 절벽상에 정신없이 달아날 제…….

- ① 小隙沈舟
- ② 魂飛魄散
- ③ 亡羊補牢
- ④ 干名犯義

정답 ②

해설: 정신없이 놀라서 달아나는 모습이므로 ‘혼비백산(魂飛魄散)’이 적당하다. 혼비백산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,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.

- ① 소극침주(小隙沈舟): 조그만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으로, 작은 일을 게을리 하면 큰 재앙이 닥치게 됨을 이르는 말.
- ③ 망양보뢰(亡羊補牢):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,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.
- ④ 간명범의(干名犯義): 명분을 거스르고 의리를 어기는 행위.

13. 다음 자료가 간행된 시기에 나타난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太子 | 道理 일우샤 즈개 慈悲호라 ㅎ시느니
「석보상절」

- ① ‘니’와 ‘긔’가 단모음화된 시기이다.
- ②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가 쓰였던 시기이다.
- ③ 주격 조사 ‘가’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다.
- ④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이다.

정답 ①

해설: 중세국어 시기에는 ‘아래아’를 포함해서 7단모음이었으므로 ‘니’와 ‘긔’는 이중모음이었다. ‘니’와 ‘긔’가 단모음화된 시기는 현대국어이므로 이는 틀린 말이다.

14. 다음 작품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지니는 것은?

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
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
 위 증즐가 대평성덕(大平盛代)

날러는 엇디 살라 후고
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
 위 증즐가 대평성덕(大平盛代)

잡스와 두어리마누는
 선후면 아니 올세라
 위 증즐가 대평성덕(大平盛代)

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
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
 위 증즐가 대평성덕(大平盛代)

- ① 한용운, 「님의 침묵」
- ② 김상용, 「남으로 창을 내겠소」
- ③ 서정주, 「국화 옆에서」
- ④ 김소월, 「진달래꽃」

정답 ④

해설: 제시문은 고려가요 ‘가시리’이다.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(情恨)을 다룬 작품이므로 김소월의 「진달래꽃」이 적당하다.

15. 문맥을 고려하여 ㉠~㉣을 가장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?

길동이 ㉠ 체읍주왁(涕泣奏曰), 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 부형(父兄)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, ㉡ 팔자 기박하여 천생(賤生)됨을 평생 한일 뿐더러 가(家) 중에 시기하는 사람을 피하여 정처 없이 다니다가 천만 몽매(蒙昧)로 몸이 ㉢ 적당(賊黨)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붙였더니, 죄명이 이에 미치었사오니 명일에 소제(小弟) 잡은 연유를 장계하옵고, 소제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. 하며, 담화로 날을 새우고 평명(平明)에 감사 길동을 철쇄로 결박하여 보낼새 ㉣ 참연(慘然)히 낮빛을 고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.

- ① ㉠ : 길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짓고 있군.
- ② ㉡ : 길동이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군.
- ③ ㉢ :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하겠군.
- ④ ㉣ : 길동이 감사를 결박하고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군.

정답 ③

해설: ‘도둑의 무리에 빠져서 잠시 생애를 붙였더니 죄명이 이에 미쳤다’고 했으므로 길동의 죄명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. 나머지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.

- ㉠ 체읍주왁(涕泣奏曰): 눈물을 흘리며 아뢰며 말하기를
- ㉡ 팔자 기박하여 천생(賤生)됨을 평생 한일뿐더러: 팔자가 사나워서 천한 인생이 됨을 평생 한탄한 것일 뿐더러
- ㉣ 참연(慘然)히 낮빛을 고치고: 슬프고 참혹하게 얼굴빛을 하고

16.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,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. 체계적 국제 운송 및 통신 시스템의 도입으로 타 문화권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들과 식품들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,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. 링곤베리와 파인애플 주스는 코카콜라에,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은 청바지에, 고원에서 자라던 토종 소들은 저지 젓소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. 다양성이란 것은 한 회사에서 만든 열가지의 청바지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.

- ①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.
- ②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.
- ③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.
- ④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켰군.

정답 ②

해설: 글쓴이의 의도는 중심 내용을 묻는 것이다. 중간 부분에서 “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,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.”라고 했으므로 ‘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다’는 설명은 주제와 적절하다.

17. 밑줄 친 부분에 사용한 표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넓은 벌 동쪽 끝으로
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,
 얼룩백이 황소가
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,
 -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.
 - 정지용, 「향수」중에서 -

- ①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/ 이것은, / 치명적인 냄새
- ② 명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쭉살쭉 늦가을 햇볕 밧 디디는 소리
- ③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, /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/ 열(熱)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.
- ④ 피아노에 앉은 / 여자의 두 손에서는 / 끊임없이 / 열 마리씩 / 스무 마리씩 / 신선한 물고기가 /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/ 쏟아진다.

정답 ③

해설: ‘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’은 공감각적 심상(청각의 시각화)이다.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의 다른 감각으로 전이(轉移)해야 한다. 그런데 ③번은 촉각적 심상(서느런 옷자락)과 시각적 심상(불을 비비는 행동)이 각각 존재하는 복합 감각이다. 즉, 단일 감각이 여러 개 나온 것이므로 감각의 전이가 없다.

①번은 후각의 시각화, ②번은 시각의 청각화, ④번은 청각의 시각화이다.

